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
— 이북 소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을 중심으로

오현아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 이 논문은 <통일시대 초등학교 중학년군 국어교과서 개발의 반성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국어교육연구회 제5회 학술대회(2021년 1월 16일)의 제2부 <주제 발표1 :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에서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초등국어교육 탐색의 실제적 과정을 꼼꼼히 살펴 주신 신현재 선생님(한국교원대)과 폭넓은 해안으로 통일 초등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영감을 주신 박인기 선생님(경인교대),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과제를 국가적 사안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 주신 이인정 선생님(통일교육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귀한 토론으로 발표를 뜻 깊게 만들어 주신 이창근 선생님(전주교대)과 발표에 깊이 공감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귀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 선생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 I. 들어가며 :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
- II.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 III. 이북의 초등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IV. 나가며 :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통일시대를 꿈꾸며

I. 들어가며

: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

이 연구는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할 때, “통일시대”에 이남과 이북 출신의 어린이들은 문화 문식성 차원에서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지니며, 이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학교 내 문식성, 학교 밖 문식성, 학업 문식성, 학업 성취도, 직업 문식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의식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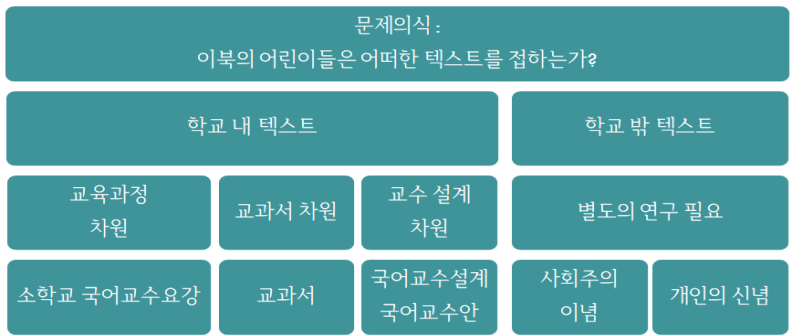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 문제의식 중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 텍스트’에 한정해 ‘소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차원, 교과서 차원, 교수 설계 차원’의 접근 가능한 확정적인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의 문제를 ‘학교 내 문식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통일 대비 언어 관련 논의에서 어휘와 문체 수준의 이질성이 있을 뿐, 통사적인 수준에서의 이질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고영근, 1999; 김혜정, 2013; 이주랑·양수경, 2019; 이현주·신중진,

2017; 한명숙, 2020 등)를 존중하면서도 실제 탈북민 관련 인터뷰에서 언어문화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들(신은영·오현아, 2020; 오현아·김지혜, 2019ㄱ, 2019ㄴ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통일 대비 언어 혹은 언어 교육 관련 논의가 언어 그 자체의 논의에서 언어문화 관련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신은영·오현아, 2020; 오현아, 2021).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북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이북의 창작동화를 통해 이북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오현아(2021)과 동일선상에 있다.

또한 ‘학교 밖 텍스트’의 경우, 이북의 사회주의 이념과 개인의 신념에 따라 접하는 텍스트 목록이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탈북민을 연구 참여자로 한 별도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후일에 별도의 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의식을 도해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문제의식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장에서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3장에서는 ‘이북의 초등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통일시대를 꿈꾸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2장에서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 통일시대란 무엇인가, 2.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 방향 탐색의 의의’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통일시대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통일시대’란 무엇인가? ‘통일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어문교육 연구로는 김중신(2014), 이삼형(2015), 장지혜(2016), 진선희(2019), 진선희(2020), 한명숙(2016) 등이 있다.

김중신(2014: 98-99)에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현재적 전략은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 1994년에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유력한 것¹⁾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초 위에서 통일 과정을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시대’에 대한 논의는 3단계의 ‘통일국가’ 완성 단계보다는 1단계에 해당하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화해 협력 단계에서의 통일 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화해 협력 단계’는 특정한 정치적 사태와는 무관하게 항존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와 화해 협력하려는 자세를 요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김중신(2014)의 논의는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정치·사회·경제적 논의가 어떠한 사태로 진행되더라도 어문교육 연구자들

1) 이는 이인정(2021)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내용으로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

은 통일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항존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와 화해 협력하려는 연구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삼형(2015)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차이의 문제, 남북한 교육 이념과 방법의 이질화로 인한 국어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서의 통합, 서로 다른 교육 이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의 문제와 교사 재교육의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한명숙(2016)에서는 다문화시대의 언어 현실에 따라 한국사회를 ‘한국 어사회’로 보는 인식의 기반 위에서 ‘한국어 공동체’와 이를 이루는 ‘한국어 다양체’들의 연결 접속과 통합이 ‘한국어 통일’임을 논의하고 있다.

장지혜(2016)에서는 통일 시대의 국어교육이 동질성보다는 타자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자기이해와의 관련성 하에 타자성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통해 분리와 소통을 지향할 수 있는 통일시대 국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진선희(2019)에서는 오랜 남북 단절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시대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아동문학 제재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전래동화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진선희(2020)에서는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과정인 통일교류기에 남한과 북한이 활용할 ‘남북한 공통 국어’라는 교과를 상정하여 초등 문학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역량, 평화역량, 상호문화 역량, 통일역량’을 제시하고 ‘아동문학 제재 선정, 아동문학 장르 용어 및 문학교육 용어의 문제, 문학교육 내용 영역 설정의 문제와 해결 방향’을 탐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통일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어문 교육 연구가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중 어느 단계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그 목적과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 세부 영역의 ‘동질성, 이질성’ 논의에서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이질성 확인, 동질성 회복, 이질성 존중, 통합’ 등으로 그 논의의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중신(2014)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시대’를 ‘화해 협력’의 1단계에 집중해 바라보면서, 이삼형(20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교육 이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북의 초등국어교육 텍스트’에 나타난 이북의 언어문화를 상호 문화 문식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루고자 한다.

2.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 방향 탐색의 의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꿈꾸며

그렇다면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거시적 차원의 문화 문식성 관련 선행 연구로는 박인기(2002), 박인기(2016), 윤여탁(2016) 등을, 거시적 차원의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 문식성 관련 연구로는 권순희(2008)등을 들 수 있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다문화 문식성 제고를 위한 읽기 텍스트 혹은 문학 제제 관련 연구로는 권순희·김호정·이수미(2008), 김미혜(2010, 2014), 김성진(2015), 김혜영(2012), 안젤라리-스미스·김미정(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박인기(2002)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실제 미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문식성은 기존의 읽기 또는 기본적 문식성 기능(literacy skill)을 포함하는 복합적 문식성이며,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식성 기능(literacy skill)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또는 뉴미디어에 의해서 커뮤니티화되는 현대인들)에 의해 공유되는 ‘텍스트 해석의 구조’를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문식성은 주로 제2언어의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화되었다....‘문화적 문식성’의 문제는 미국 교육의 정치적 성격과 언어와 문식성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짚어 보게 한다. 그것은 사회에 의해서 주변화되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능력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할 때, 대단히 절실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데, 이는 동시에 교육적 이슈이기도 하다(박인기, 2002: 8-9).

즉, 박인기(2002)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의 문제는...사회에 의해서 주변화되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능력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할 때, 대단히 절실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데, 이는 동시에 교육적 이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실제 탈북민 인터뷰²⁾에서 언어문화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들(신은영·오현아, 2020; 오현아·김지혜, 2019ㄱ, 2019ㄴ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그 단적인 특징으로 1) 낮은 이남 문화(신은영·오현아, 2020: 147-148), 2) 교화적 성격이 강한 이북의 문학교육 경험(오현아·김지혜, 2019ㄱ: 35)과 3) 문학 독서 경험의 차이로 인한 문학 소양의 차이(오현아·김지혜, 2019ㄴ: 196)을 들 수 있다.

첫째, ‘낮선 이남 문화’와 관련해 세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탈북민들은 이남과 이북의 문화를 단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비시켜 인

2) 탈북민 인터뷰는 ‘통일 시대’를 염두에 둔 모든 연구 혹은 국가 사업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 논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일반의 이남 사람들은 이북의 서지적 자료에만 접근 가능할 뿐, 이북의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와 방법이 없다. 따라서 탈북민 인터뷰는 ‘이북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 교육의 결과 이북 사람들은 이남 사람들과 어떠한 지점에서 언어문화적인 이질성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에 일반의 연구자가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탈북민 일부에 한정된 특수한 경험일 수 있음에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탈북민들 안에서도 이러한 이남의 문화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이 없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교화적 성격이 강한 이북의 문학교육 경험’과 관련해 이북에서의 문학교육은 ‘주체사상의 도구’, ‘현 이북 체제에 대한 찬양’, ‘원췌에 대한 적개심 고양’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개인의 감정은 저급한 것으로 바라보아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중시하는 이남의 문학교육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셋째, ‘문학 독서 경험의 차이로 인한 문학 소양의 차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은 교화적 성격이 아닌 문학작품에 대한 낯설음이 있었으며, 해외 문학작품을 접한 경험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남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독서 목록에 대해 이북 분들은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 문식성의 간극이 큰 이남과 이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적 문식성은 무엇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며 상호 이해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적 문식성의 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 개별자로 존재하는 이남과 이북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이기에 겪어야 하는 사회문화적 차별과 고통이 통일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이남과 이북의 사람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집단적인 표현을 쉽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남 사람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될 수 없듯이, 이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이북 출신’이라는 지역적 출신 배경에 의해 사회문화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이질감과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통일 비용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초등국어교육 텍스트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현실태로서의 이남과 이북의 문화적 문식성의 차이, 그 간극이 통일시대의 잠재적 부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의 과정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관점은 박인기(2002)의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 중 ‘문화의 공시적 양태, 기능적 소통 효과, 비판적 소통 효과, 지식 차원 활용, 전략 차원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인기(2002: 12-16)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배경을 검토하면서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코드와 맞물리는 국면을 ‘문화의 존재 양태’, ‘문화 인지의 효과’, 그리고 ‘문식성의 활용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

구분	문화의 존재 양태 - 문식성 내용 범주	문화 인지의 효과 - 문식성의 작용 효과	문식성의 활용 차원
	문화의 통시적 양태	기능적 소통 효과	지식 차원 활용
	문화의 공시적 양태	비판적 소통 효과	전략 차원 활용

* 이 표는 연구자가 요약하여 표로 제시한 것임.

그리고 박인기(2002: 18)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특징 요소들 간에 상호성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구체적 기능태를 통해서 점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III. 이북의 초등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장의 관점에 기반해 3장에서는 이북의 초등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 교육과정 차원, 2. 교과서 차원, 3. 교수 설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 대상 목록은 이북에서의 2012 학제 개편 이후³⁾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에 따라 2013년에 발표된 초·중·등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국어교수설계, 국어교수안 등으로, 자세한 목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목록

분석 차원	연구 대상 목록
교육과정 차원	소학교 국어교수요강
교과서 차원 ⁴⁾	리수향 외(2013), 『국어소학교1』, 교육도서출판사. 리수향 외(2014), 『국어 소학교2-1』, 교육도서출판사. 리수향 외(2014), 『국어 소학교2-2』, 교육도서출판사. 리수향 외(2014), 『국어 소학교3-1』, 교육도서출판사. 리수향 외(2014), 『국어 소학교3-2』, 교육도서출판사.
교수 설계 차원	김현호(2016), 『국어교수설계교원대학』, 교육도서출판사.

1. 교육과정 차원

먼저, 교육과정 차원에서 ‘소학교 국어교수요강’의 ‘1. 교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3) 이북의 2012 학제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은 김양희(2016)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 4) 이북의 2012 학제 개편에 따라 소학교는 5학년까지 있으나, 국내에 유입된 2013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이북 소학교 교과서는 3학년까지만 있어, 4·5학년은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우리 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초급중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50쪽).

위 인용을 통해, 우리는 이북의 소학교 국어 교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북 체제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주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학교 국어교수요강’의 ‘2) 교수목표’에 기술된 텍스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재(생활문체의글들과아동문학작품, 50쪽)
- 일기, 편지, 감상글, 해설글, 기행글 등 생활적인 글과 동시, 동화, 우화, 아동소설, 극(51쪽)
- 과외에 우수한 동요동시 20편을 외우고 아동문학작품 30편을 읽도록 한다.(51쪽)

그리고 ‘소학교 국어교수요강’의 ‘2. 교수 내용’에 기술된 학년별 텍스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학년: 이남과 마찬가지로 문자교육에 집중함.
(‘19과 욕심 많은 개’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텍스트 제시)
- 2학년: 생활적인 글과 아동문학작품(57쪽)
과외에 우수한 동요, 동시 3편을 외우고 아동문학작품 5건을 읽도록 한다.(57쪽)
- 3학년: 생활적인 글과 아동문학작품(60쪽)
과외에 우수한 동요, 동시 5편을 외우고 아동문학작품 7편을 읽도록 한다.(61쪽)
- 4학년: 생활적인 글과 아동문학작품(64쪽)

과외에 우수한 동요, 동시 6편을 외우고 아동문학작품 9편을 읽도록 한다.(64쪽)

• 5학년 : 생활적인 글과 아동문학작품(67쪽)

과외에 우수한 동요, 동시 6편을 외우고 아동문학작품 9편을 읽도록 한다.(68쪽)

이상의 인용을 통해, 이북에서는 소학교 수준의 생활적인 글과 아동문학작품을 소학교 국어 교과서의 주요 텍스트 유형으로 다루면서 암송을 기본적인 교육 방식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들을 통해서도 이북에서의 초등국어교육 텍스트가 ‘사상교육, 교양교육’⁵⁾의 주요 수단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학교 국어교수요강’의 ‘2)소학교 국어교수를 위한 교재구성원칙’에 기술된
텍스트

국어교재는 기본글교재와 그에 대한 학습안내교재, 상식교재, 연습교재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국어교육을 위한 기본글교재

①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주체사상원리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 집단주의교양, 로동을 사랑하는 교양 등 다양한 정치사상교양과 가정과 학교, 력사, 지리, 명인, 위생, 자연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주제의 글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국어교재의 글형태는 단어와조각문장, 이야기글, 해설글, 동화, 우화, 동요, 동시, 가사, 소설, 극, 일기, 편지, 감상문 등 소학생대상의 생활적인 글들과 아동문학작품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국어교재에서 산문과 운문의 비율은 7:3으로 하여야 한다.(73-74쪽)

5) 엄인영(2020)에서는 계급주의 교양 교육 중 ‘원췌’ 의식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남에서 접근 가능한 이북의 전학년 국어 교과서의 ‘원췌’ 의식화 교육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주요하게 참고 가능하다. 특히, 소학교급에서의 삽화 분석과 중등 국어,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으로 학교급에 따라 그 분석을 달리 진행해 결과를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소학교 국어교수요강’의 ‘4. 국어과목교수에서 지켜야할 원칙’에 기술된 내용

① 국어교육의 전 과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사상교양은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 애국주의교양, 선군사상교양, 도덕교양, 계급교양 등 사상교양의 다양한 분야에 따라 진행하며 교재글속에 구현된 형상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74쪽)

④ 학생들에게 혁명적이고 고상한 정서를 키워주고 시야를 넓혀주며 우리 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정서교양의 기본을 두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는 또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 집단과 동무들에 대한 사랑,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을 비롯한 정치도덕적감정과 아름다운것과 고상한것, 숭고한것, 추하고 속된것 등 미학적정서를 키워주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의 미적정서교육은 글교재가 담고있는 정서적내용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읽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 글씨쓰기 등 언어실천활동과정에 진행되어야 한다.(75쪽)

2. 교과서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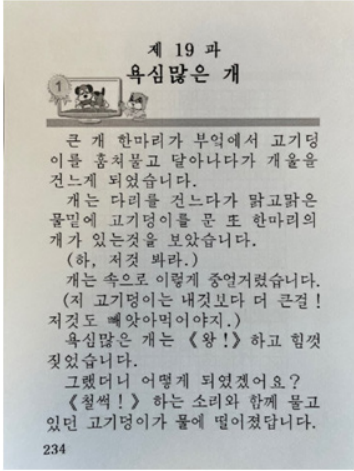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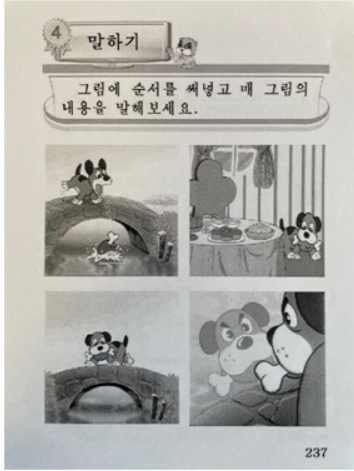
그렇다면 교과서 차원에서 실제 어떠한 텍스트들이 등장하는지⁶⁾ 학년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
- 6)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들은 분석 과정에서 학년별로 모두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북 소학교 국어과 수록 제재 중 ‘친구와의 우정 등’과 같은 일상적인 초등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이 있는 텍스트는 ‘일상적 텍스트’로, 그 중 ‘위인 이야기, 이십 우화 등’과 같이 남북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텍스트는 ‘남북 공통 텍스트’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19>에서 귀납적으로 요약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1) 1학년

1학년에 등장하는 텍스트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학년에 다뤄진 텍스트

1학년 제19과 <욕심많은 개> (읽기, 우화, 234쪽)	1학년 제19과 <욕심많은 개> (말하기, 우화, 237쪽)
 제 19 과 욕심많은 개 큰 개 한마리가 부엌에서 고기덩이를 훔쳐물고 달아나다가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개는 다리를 건너다가 맑고맑은 물 밑에 고기덩이를 묻고 한마리의 개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하, 저것 봐라.) 개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고기덩이는 내것보다 더 큰걸! 저것도 빼앗아먹어야지.) 욕심많은 개는 <왕!> 하고 힘껏 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물고 있던 고기덩이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234	 4 말하기 그림에 순서를 써넣고 매 그림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237

이남과 마찬가지로 이북에서도 1학년에서는 문자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마지막 과인 19과에 이르러서야 <표 3>의 온전한 텍스트가 읽기 체재로 처음 등장하게 된다. ‘제19과 <욕심많은 개>’에서는 읽기 체재로 이 습우화가 제시되어 남북 공통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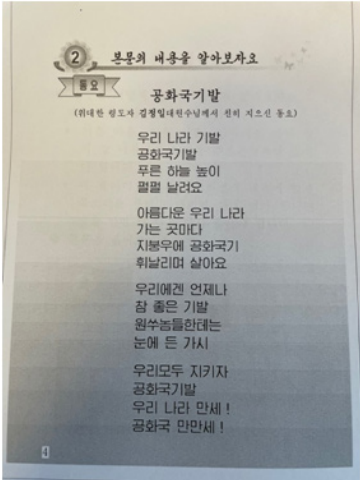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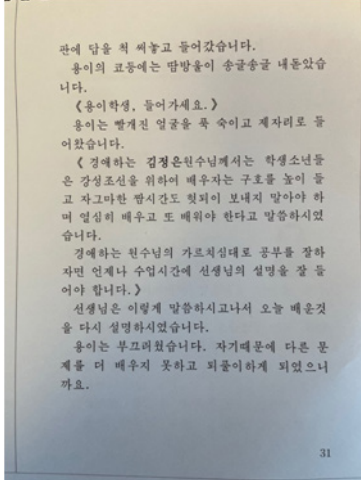
2) 2학년

1학년에서는 학기 구분 없이 단권으로 구성된 데 반해, 2학년부터는 학기 구분에 따른 분책이 이루어진다.

(1) 2학년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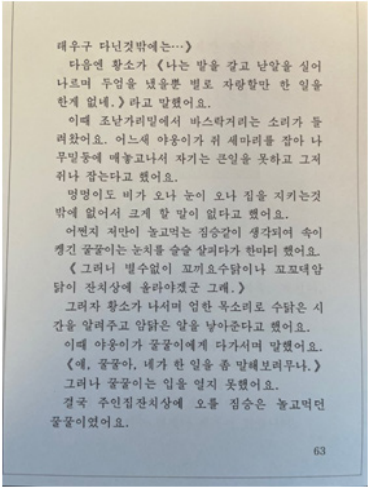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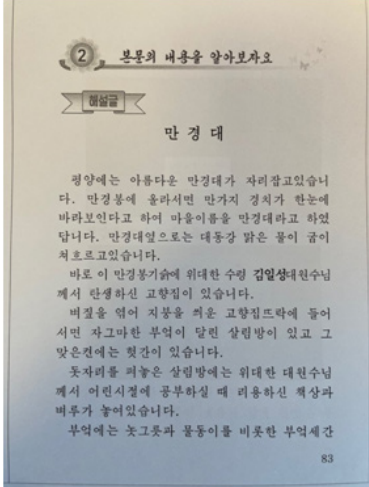
2학년 1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로는 <표 4>~<표 7>이 이에 해당되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4> 2학년 1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1)

2-1 제1과 <공화국기발> (읽기, 동요, 4쪽)	2-1 제3과 <귀중한 공부시간> (읽기, 이야기글, 31쪽)
	

<표 4>와 같이 2학년 1학기 ‘제1과 <공화국기발>’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요가 제시되는데, 그 내용은 ‘애국심 고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3과 <귀중한 공부시간>’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현 지배 체제 찬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 2학년 1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2)

2-1 제6과 〈놀고먹던 꿀꿀이〉 (읽기, 동화, 61-63쪽)	2-1 제8과 〈만경대〉 (읽기, 해설글, 83쪽)
 태우구 다닌것밖에는... 다음엔 황소가 《나는 발을 갈고 난알을 실어 나르며 두엄을 냈을뿐 별로 자람할만 한 일을 한게 없네.》라고 말했어요. 이때 조난가리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야옹이가 휘 세마리를 잡아 나 무덤통에 매놓고나서 자기는 큰일을 못하고 그저 취나 잠는다고 했어요. 명명이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을 지키는것 밖에 없어서 크게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어느지 저만이 놀고먹는 짐승같이 생각되어 속이 썩긴 꿀꿀이는 눈치를 슬슬 살피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별수없이 꼬끼요수달이나 꼬꼬댁암달이 잔치상에 올라야겠군 그제.》 그러자 황소가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수달은 시 간을 알려주고 암달은 알을 낳아준다고 했어요. 이때 야옹이가 꿀꿀이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예, 꿀꿀이, 네가 한 일을 톰 말해보려무나.》 그러나 꿀꿀이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주인집잔치상에 오를 짐승은 놀고먹던 꿀꿀이었어요. 63	 2.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자 해설글 만 경 대 정양에는 아름다운 만경대가 자리잡고있습니다. 만경봉에 올라시면 만가지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인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만경대라고 하였습니다. 만경대일으로는 대동강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있습니다. 바로 이 만경봉기슭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있습니다. 벼질을 얻어 지분을 켜운 고향집트락에 들어서면 자그마한 부엌이 달린 살림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햇간이 있습니다. 뚝자리를 떠놓은 살림방에는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공부하실 때 이용하신 책상과 벼루가 놓여있습니다. 부엌에는 돛꽃과 물동이를 비롯한 부엌세간 83

〈표 5〉와 같이 2학년 1학기 ‘제6과 〈놀고먹던 꿀꿀이〉’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화가 제시되는데, 그 내용은 ‘노동의 신성함과 찬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8과 〈만경대〉’에서는 읽기 제재로 해설글이 제시되는데, ‘현 지배 체제 찬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6〉 2학년 1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3)

2-1 제11과 〈청개구리이야기〉 (듣기, 동화, 113쪽)	2-1 제12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읽기, 동요, 123쪽)		
③ 《청개구리이야기》를 들어보지요 ❖ 자세를 바르게하고 그림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청개구리이야기를 다시 듣고 대답해보세요. • 누구들이 나왔습니까? • 청개구리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언제 있는 이야기입니까? •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처음, 다음, 마감) 113	우리 나라는 아침해를 제일 먼저 보는 나라입니다. ❖ 왜 아름다운 우리 나라라고 합니까? ② 본문과 내용을 알아보지요 동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윤복진 <table><tr><td>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풍경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td><td>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 문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td></tr></table> 123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풍경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 문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풍경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 문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표 6〉과 같이 2학년 1학기 ‘제11과 〈청개구리이야기〉’에서는 듣기 제재로 동화가 제시되는데, 이남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남북 공통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과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요가 제시되는데, ‘애국심 고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7〉 2학년 1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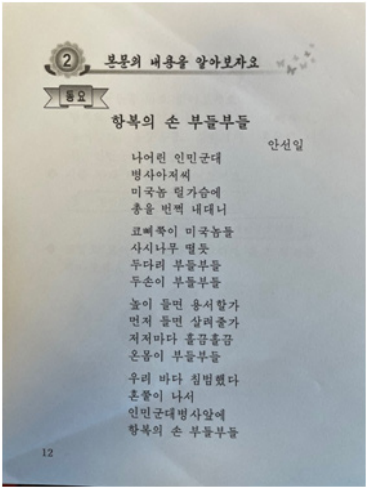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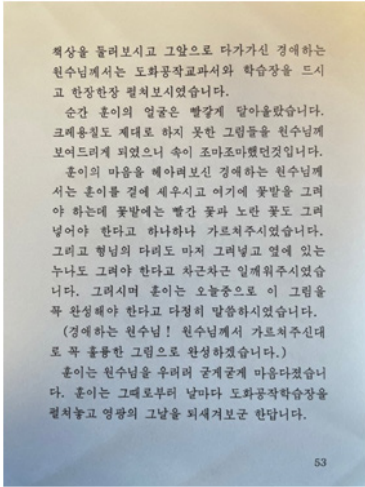
2-1 제13과 〈맴매가 따온 수박〉 (읽기, 동화, 135쪽)	2-1 제15과 〈들꽃소녀〉 (읽기, 이야기글, 161쪽)
2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지요 활동 맴매가 따온 수박 박상용 어느 산골마을에 흰눈이라고 부르는 일과 맴매라고 부르는 엄소, 누렁이라고 부르는 소가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수박밭에 갔던 맴매는 잘 익은 수박 한통을 따왔습니다. (이제 먹읍시다.) 그 자리에서 수박을 포개먹으려던 맴매는 문득 흰눈이가 생각났습니다. (이 무더위에 더워서 퍽퍽하는 흰눈이한테 줘야지.) 맴매는 가느다란 흰 수업을 날리며 수박을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침 흰눈이가 집에 있었었습니다. 《흰눈아, 무언히 덤겼구나. 자, 이것 먹어. 시원할거야.》 《아! 맛있겠는데, 너무 같이 먹자꾸나.》 맴매는 자기는 먹었다고 하면서 얼른 자리를 땀습니다. 수박을 들고 군침을 삼키던 흰눈이는 135	 소녀 ◆ 들꽃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들꽃소녀라고 부를까요? 2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지요 활동 들꽃소녀 국경도시 신의주의 내가 사는 교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도사적을 길이 전하는 표식비가 정중히 세워져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아 처음으로 꽃다발을 드린 날 161

〈표 7〉과 같이 2학년 1학기 ‘제13과 〈맴매가 따온 수박〉’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화가 제시되는데, ‘친구의 우정’을 다룬 일상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5과 〈들꽃소녀〉’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현 지배 체제 찬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로는 <표 8>~<표 10>이 이에 해당되는 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8> 2학년 2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1)

2-2 제17과 <항복의 손 부들부들> (읽기, 동요, 12쪽)	2-2 제21과 <훈이의 도화공작학습장> (읽기, 이야기글, 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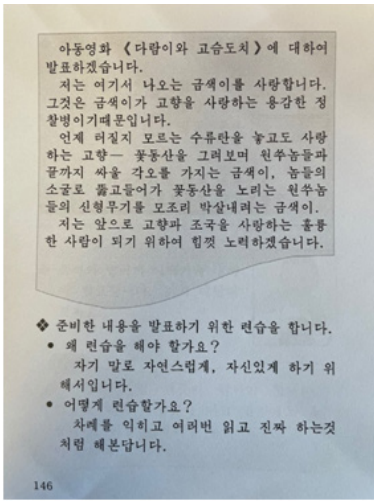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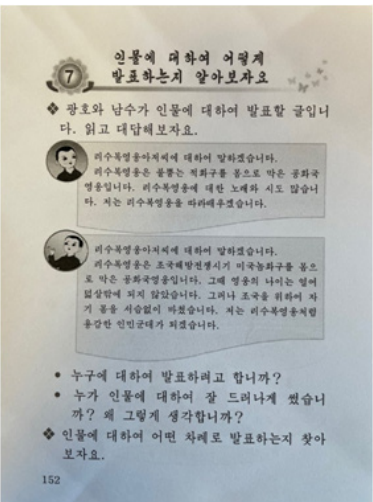
<표 8>과 같이 2학년 2학기 ‘제17과 <항복의 손 부들부들>’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요가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1과 <훈이의 도화공작학습장>’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 글이 제시되는데, ‘현 지배 체제 찬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9〉 2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2)

2-2 제23과 <미제승냥이> (읽기, 이야기글, 81쪽)	2-2 제25과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듣기, 우화, 105쪽)
무를 한짐 태지고 집으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명십이가 페스머라는 미제놈의 사과밭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수수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새빨간 사과 한알이 뚝 떨어져 울타리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아, 사과!》 명십이는 그곳으로 달려가 사과를 집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울타리질을 지나던 페스미놈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놈의 낯빛이 무섭게 이그러졌습니다. 그놈은 말처럼 크고 사자처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냥개는 사정없이 어린 명십이를 물어뜯었습니다. 명십이는 작대기로 사냥개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사냥개는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페스미놈이 명십이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그놈은 명십이를 나무에 꿰뚫어 놓고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는 글자를 81	❶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의 내용을 알아보아요 ◆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를 듣고 알아보지요. • 누가 나왔을까? • 어느때 어떤 일입니까? • 어디에서 어떤 일입니까? ◆ 이야기를 다시 듣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써 넣으세요.     ◆ 그림의 내용을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105

〈표 9〉와 같이 2학년 2학기 ‘제23과 <미제승냥이>’에서는 읽기 체제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5과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에서는 듣기 체제로 이솝 우화가 제시되는데, 이남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남북 공통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표 10〉 2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3)

2-2 제28과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말하기, 아동영화, 146쪽)	2-2 제28과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말하기, 〈리수복영웅이야기〉, 152쪽)
 아동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금색이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금색이가 고향을 사랑하는 용감한 정찰병이기때문입니다. 언제 터지지 모르는 수류탄을 놓고도 사랑하는 고향— 꽃동산을 그려보며 원주놈들과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지는 금색이, 놈들의 스굴로 뚫고 들어가 꽃동산을 노리는 원주놈들의 실행루기를 모조리 박살내려는 금색이. 저는 앞으로 고향과 조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 왜 연습을 해야 할까요? 자기 말로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어떻게 연습할까요? 차례를 익히고 여러번 읽고 진짜 하는것처럼 해본답니다. 146	 인물에 대하여 어떻게 발표하는지 알아보아요 ◆ 광호와 남수가 인물에 대하여 발표할 글입니다. 읽고 대답해보지요. 리수복영웅이저에게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리수복영웅은 몸통은 쥐와구를 몸으로 막은 공화국영웅입니다. 리수복영웅에 대한 노래와 시도 많습니 다. 저는 리수복영웅을 따르려하겠습니다. 리수복영웅이저에게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리수복영웅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을 몸으 로 막은 공화국영웅입니다. 그때 영웅의 나이는 열여 덟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자 기 몸을 사슴없이 바쳤습니다. 저는 리수복영웅처럼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 누구에 대하여 발표하려고 합니까? • 누가 인물에 대하여 잘 드러나게 썼습니 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인물에 대하여 어떤 차례로 발표하는지 찾아 보지요.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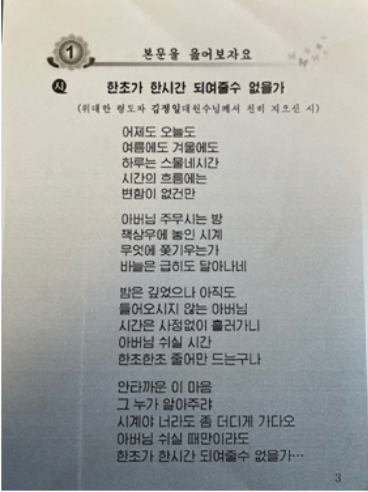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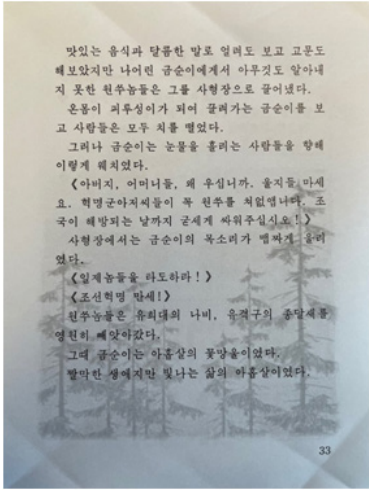
〈표 10〉과 같이 2학년 2학기 ‘제28과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에서는 말하기 제재로 <다람이와 고슴도치>라는 아동영화가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애국심 고양, 원수에 대한 적개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과에서 말하기 제재로 <리수복영웅이야기>가 제시되는데, ‘애국심 고양,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 3학년

(1)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로는 〈표 11〉~〈표 14〉가 이에 해당되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11〉 3학년 1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1)

3-1 제1과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까〉 (읽기, 시, 3쪽)	3-1 제4과 〈금순이는 아홉살이었다〉 (읽기, 이야기글, 33쪽)
 본문을 읽어보지요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까 (위대한 평도자 김경일대원수님께서 권하 저으신 시) 어제도 오늘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하루는 스물네시간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건만 아버님 주무시는 방 책상위에 놓인 시계 무엇에 못가우는가 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 밤은 깊었으나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아버님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니 아버님 쉬실 시간 한조한조 줄어만 드는구나 안라까운 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 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까... 3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말로 열려도 보고 고문도 태보았지만 나 어린 금순이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 지 못한 원주농들은 그를 사형장으로 끌어들었다. 운율이 괴루심이거 되어 끌려가는 금순이를 보 고 사람들은 모두 치를 떨었다. 그러나 금순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었다. 「아버지, 어머니들, 꽤 우습니까. 울지들 마세 요. 혁명군아지씨들이 목 천주를 쳐엎어나랴. 조 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사형장에서서 금순이의 목소리가 멍파게 울어 었다. 「일제놈들을 라도하라!」 「조선혁명 만세!」 원주농들은 유리대의 나비, 유격구의 총알새를 영원히 빼앗아갔다. 그때 금순이는 아홉살의 푸망골이었다. 말썽한 생애지만 빛나는 삶의 아홉살이었다. 33

〈표 11〉과 같이 3학년 1학기 ‘제1과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없을까〉’에서는 읽기 제재로 시가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현 지배 체제에 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과 〈금순이는 아홉살이었다〉’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애국심 고양,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2〉 3학년 1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2)

3-1 제6과 〈할아버지가 되었던 철이〉 (읽기, 동화, 55쪽)	3-1 제7과 〈곰슬이와 방울이〉 (듣기, 이야기글, 67쪽)
철이는 위구멍에라도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런 동무는 소년단원 자격이 없어!》 아이들은 저마다 말했습니다. 철이는 눈물을 똑똑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무들, 나처럼 깨끗없는 학생은 이렇게 꼬마 할아버지가 되어 놀림받아도 웬담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품종도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뽀얀 연기 같은것이 피어오르더니 철이의 하얀 머리카락이 눈깜짝할사이에 까맣게 되고 얼굴의 주름도 없어졌습니다. 《아! 철이구나!》 온빌이가 철이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소곤거렸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고운 애였구나!》 • 누가 나옵니까? • 어디에서 있는 일입니까? •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5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알아보지요 2  ◆ 누가 나옵니까? ◆ 언제 어디에서 있는 일입니까? ◆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 좋은 이야기의 내용을 말해보지요.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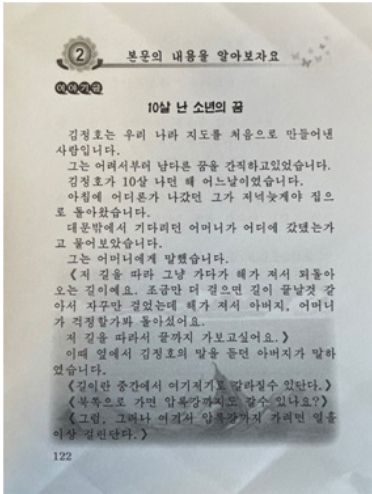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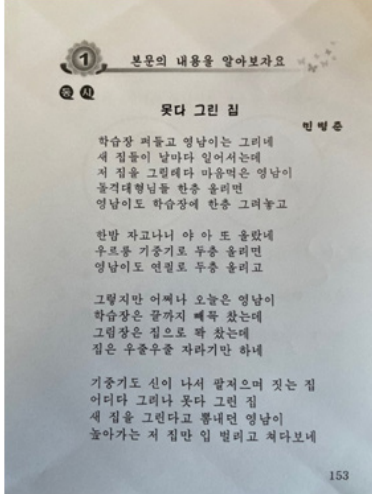
〈표 12〉와 같이 3학년 1학기 ‘제6과 〈할아버지가 되었던 철이〉’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화가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애국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7과 〈곰슬이와 방울이〉’에서는 듣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상대를 가리지 않는 한결같은 인사 예절’이 주된 내용인 일상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표 13〉 3학년 1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3)

3-1 제8과 〈사랑의 날개〉 (읽기, 이야기글, 77쪽)	3-1 제10과 〈꽃다발〉 (읽기, 동요, 101쪽)
철혁이는 자기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선소년단장님 66출정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철혁이가 평양으로 떠나던 날 온 마을이 떨치나와 길고 험한 산길로 철혁이를 혼자 걸려보낼수 없다고 하면서 팔따리를 뚫수레처럼 만들어 태워주었습니다.  그다음 철혁이는 자전거와 반집차, 배스를 갈아타면서 평양으로 줄곧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서 가자. 친수님께서 나를 평양으로 부르신다.) 철혁이는 맑고 푸른 하늘을 훨훨 나는 새들을 77	2 본문을 유창하게 읽어보지요 꽃 다 발 송 동 향 십년전에 우리 학교 종업원 형님 금별매달 번쩍 달고 찾아오던 날 나는나는 너무 기뻐 먼저 달려가 아름다운 꽃다발 안겨드렸지 나도 얼른 자라자 저 형님처럼 금별매달 번쩍번쩍 돌아올 때면 귀염둥이 동생들 모두 달려와 나한테도 꽃다발 안겨주겠지.  101

〈표 13〉과 같이 3학년 1학기 ‘제8과 〈사랑의 날개〉’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현 지배 체제에 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과 〈꽃다발〉’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요가 제시되는데, ‘애국심 고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4〉 3학년 1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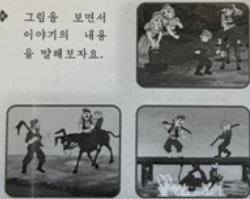
3-1 제12과 〈10살 난 소년의 꿈〉 (읽기, 이야기글, 122쪽)	3-1 제15과 〈뭇다 그린 집〉 (읽기, 동시, 153쪽)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지요 10살 난 소년의 꿈 김정호는 우리 나라 지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꿈을 간직하고있었습니다. 김정호가 10살 나던 해 어느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나갔던 그가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어디에 갔왔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길을 따라 그냥 가다가 댕가 저서 되돌아오는 길이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길이 끝날것 같아서 자꾸만 걸었는데 댕가 저서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돌아왔어요. 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고싶어요.》 이때 옆에서 김정호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김이만 중간에서 여기서기도 말하질수 있단다.》 《북쪽으로 가면 압록강까지도 갈수 있나요?》 《그럼, 그버나 여저자 압록강까지 가버면 영름이상 걸린단다.》 122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지요 뭇다 그린 집 민병준 학습장 떠돌고 영남이는 그리네 새 집들이 남마다 일어서는데 저 집을 그림해다 마음먹은 영남이 물결대형님들 한층 올리면 영남이도 학습장에 한층 그리놓고 한밤 자고나니 야 아 또 올랐네 우르릉 거중기로 두층 올리면 영남이도 연필로 두층 올리고 그렇지만 어쩌나 오늘은 영남이 학습장은 끝까지 빼꼭 샅는데 그림장은 집으로 딱 샅는데 집은 우줄우줄 자라기만 하네 거중기도 신이 나서 팔지으며 짓는 집 어디다 그리나 뭇다 그린 집 새 집을 그린다고 흥내면 영남이 높아가는 저 집만 입 벌리고 쳐다보네 153

〈표 14〉와 같이 3학년 1학기 ‘제12과 〈10살 난 소년의 꿈〉’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야기’로 남북 공통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5과 〈뭇다 그린 집〉’에서는 읽기 제재로 동시가 제시되는데, ‘애국심 고양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3학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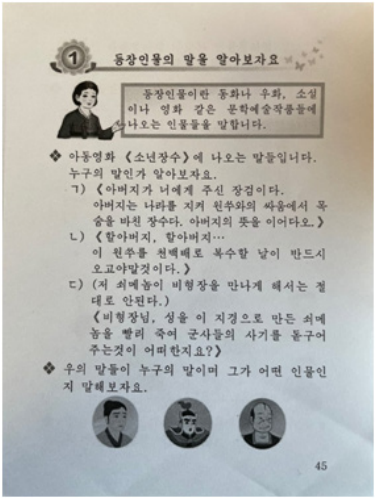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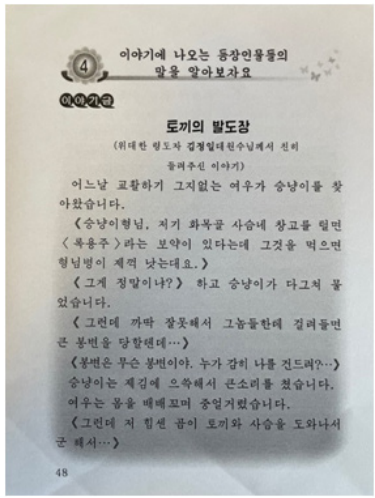
3학년 2학기에 다루어진 텍스트로는 〈표 15〉~〈표 18〉이 이에 해당되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15〉 3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1)

3-2 제17과 〈뜻깊은 개학날〉 (읽기, 이야기글, 6쪽)	3-2 제19과 〈하늘소를 팔러가던 이야기〉 (읽기, 우화, 35쪽)
철남이는 대원수님께 그때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이 막 활랑활랑거렸습니다.》 철남이의 대답을 들으신 대원수님께서는 비관을 받은 후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잘못을 고치고 숙제를 꼭꼭 하였습니다.》 적씩하게 대답하는 철남이를 대견스레 바라보시며 대원수님께서는 비관은 이제서 좋은것이라고 하시며 조지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대원수님을 우러르는 철남이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판한 동무들을 고깝게 생각했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난 정말 속이 좁은 아이였어. 동무들은 날 진심으로 생각해주었는데...) 철남이는 뜻깊은 개학날에 찾아오시어 참된 소년단원이 되라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대원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활하게 웃으시는 대원수님을 우러러 철남이와 학급 동무들은 오늘이 이 영광을 가슴에 안고 언제나 학급과 조지생활을 잘하리라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6	그때서 장대가 푹 부러지며 하늘소는 그만 강물에 침몰 뿔어지고말았습니다. 네발굽을 뽕뽕 굴이운 하늘소는 강물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말만 들던 미련한 그들은 하늘소를 아깝게도 강물에 처넣고말았습니다. (다른 나라 작품) ◆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말해보지요.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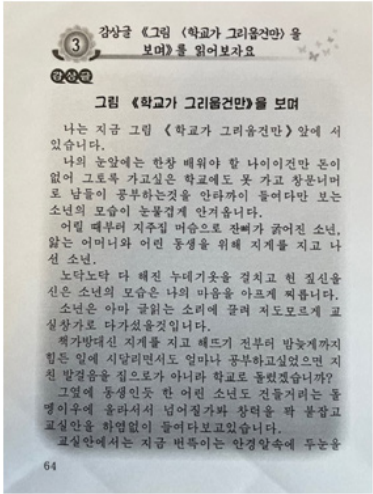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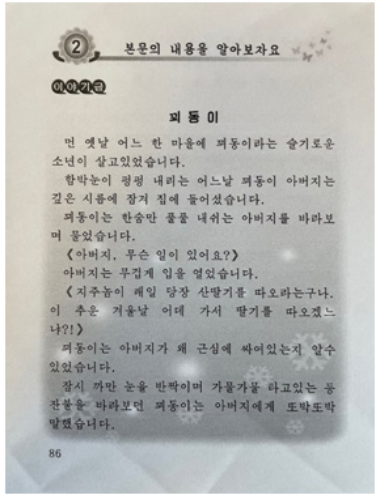
〈표 15〉와 같이 3학년 2학기 ‘제17과 〈뜻깊은 개학날〉’에서는 읽기 재료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현 지배 체제에 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9과 〈하늘소를 팔러가던 이야기〉’에서는 읽기 재료로 이습우화가 제시되어 남북 공통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표 16〉 3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2)

3-2 제20과 등장인물과 꼭같이 말해보자요 (말하기, 아동영화, 45쪽)	3-2 제20과 등장인물과 꼭같이 말해보자요 (말하기, 이야기글, 48쪽)
 1 등장인물의 말을 알아보자요 등장인물이란 동화나 우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문학예술작품들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 아동영화 《소년장수》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누구의 말인가 알아보자요. ㉠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장검이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켜 천주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장수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다오.》 ㉡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천주를 천배배로 복수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 《저 최예남이 비행장을 만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비행장님, 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최예남을 빨리 죽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는것이 어찌한지요?》 ◆ 위의 말들이 누구의 말이며 그가 어떤 인물인지 말해보자요. 45	 4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알아보자요 토끼의 발도장 (위대한 평도자 김정필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 어느날 교활하기 그지없는 여우가 송나이를 찾아왔습니다. 《송나이가형님, 저기 화복굴 사슴네 창고를 뚫면 <목용주>라는 보약이 있다는데 그것을 먹으면 형님병이 제격 낫는데요.》 《그게 정말이나?》 하고 송나이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해서 그놈들한테 걸려들면 큰 불똥을 당할텐데...》 《불똥은 무슨 불똥이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송나이는 제길에 으쓱해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여우는 몸을 뒹배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저 힙센 곰이 토끼와 사슴을 도나나서 군 해사...》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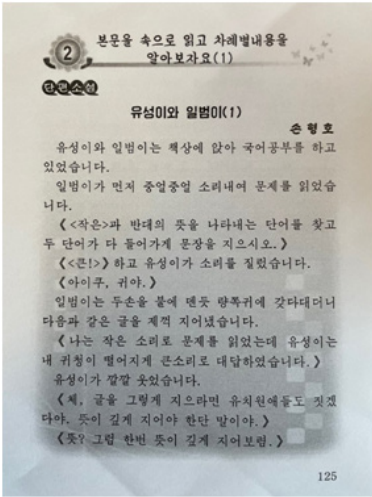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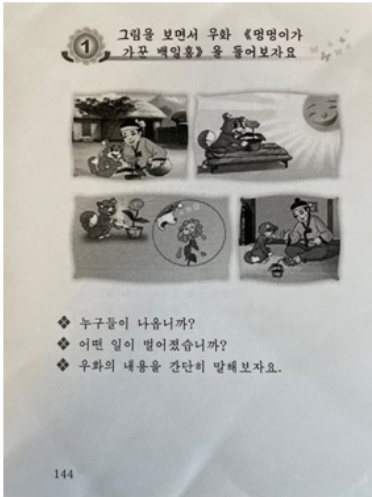
〈표 16〉과 같이 3학년 2학기 ‘제20과 등장인물과 꼭같이 말해보자요’에 서는 말하기 제재로 ‘〈소년장수〉’라는 아동영화가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애국심 고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과에서 말하기 제재로 ‘〈토끼의 발도장〉’이라는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외세 배격’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표 17〉 3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3)

3-2 제21과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만》을 보며> (읽기, 감상글, 64쪽)	3-2 제23과 <피동이> (읽기, 이야기글, 86쪽)
 3 감상글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만〉을 보며》를 읽어보지요 관찰문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만》을 보며 나는 지금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만》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한창 배워야 할 나이지만 돈이 없어 그로록 가고 싶은 학교에도 못 가고 창문너머로 남들이 공부하는 것을 안다까이 들여다만 보는 소년의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어릴 때부터 지주집 머슴으로 전배가 끊어진 소년, 앓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위해 지계를 지고 나선 소년. 노닥노닥 다 해진 누에거울을 걸치고 흰 찢신을 신은 소년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베풍니다. 소년은 아마 굶餓는 소리에 끌려 지도모르게 교실창가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책가방대신 지계를 지고 제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힘든 일에 시달리면서도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으면 지친 팔걸음을 집으로가 아니라 학교로 옮겼겠습니까? 그일에 동생인듯 한 어린 소년도 건들거리는 돌맹이주머니를 움켜잡고 넘어질까봐 장력을 꼭 붙잡고 교실안을 하염없이 걸어다녔고 있습니다. 교실안에서는 지금 번뜩이는 한겨울속에서 두눈을 64	 2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지요 이야기문 피 동 이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피동이라는 슬기로운 소년이 살고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내리는 어느날 피동이 아버지는 깊은 시름에 잠겨 집에 들어있습니다. 피동이는 한술만 꿀을 내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주놈이 매일 당장 산딸기를 따오라는구나. 이 추운 겨울날 어디 가서 딸기를 따오겠느냐?!》 피동이는 아버지가 왜 근심에 빠여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잠시 까만 눈을 반짝이며 가을가을 타고있는 물잔을 바라보면 피동이는 아버지에게 토박토박 말했습니다. 86

〈표 17〉과 같이 3학년 2학기 ‘제21과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만》을 보며>’에서는 읽기 제재로 감상글이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지주 계급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3과 <피동이>’에서는 읽기 제재로 이야기글이 제시되는데, 이 역시 ‘지주 계급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표 18〉 3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진 텍스트(4)

3-2 제27과 〈유성이와 일벌이〉 (읽기, 단편소설, 125쪽)	3-2 제28과 〈멍멍이가 가꾼 백일홍〉 (듣기, 우화, 144쪽)
	

〈표 18〉과 같이 3학년 2학기 ‘제27과 〈유성이와 일벌이〉’에서는 읽기 제재로 단편소설이 제시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친구의 우정’으로 일상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과 〈멍멍이가 가꾼 백일홍〉’에서는 읽기 제재로 우화가 제시되는데, ‘백일홍이 필요로 하는 건 진정한 햇빛’이 주된 내용으로 일상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일상적 텍스트와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를 구분해 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일상적 텍스트와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 목록

일상적 텍스트	남북 공통 텍스트
1학년 제19과 〈욕심많은 개〉(읽기, 우화, 234쪽)	1학년 제19과 〈욕심많은 개〉(읽기, 우화, 234쪽)
2-1 제11과 〈청개구리이야기〉(듣기, 동화, 113쪽)	2-1 제11과 〈청개구리이야기〉(듣기, 동화, 113쪽)
2-1 제13과 〈매향이 따온 수박〉(읽기, 동화, 135쪽)	2-2 제25과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듣기, 우화?, 105쪽)
2-2 제25과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듣기, 우화?, 105쪽)	3-1 제12과 〈10살 난 소년의 꿈〉(읽기, 이야기글, 122쪽)
2-2 제27과 〈마음의 흠자리〉(읽기, 이야기글, 129쪽)	3-2 제19과 〈하늘소를 팔러 가던 이야기〉(읽기, 이야기글, 35쪽)
3-1 제7과 〈곱슬이와 방울이〉(듣기, 이야기글, 67쪽)	
3-1 제12과 〈10살 난 소년의 꿈〉(읽기, 이야기글, 122쪽)	
3-2 제19과 〈하늘소를 팔러 가던 이야기〉(읽기, 이야기글, 35쪽)	
3-2 제27과 〈유성이와 일범이〉(읽기, 단편소설, 125쪽)	
3-2 제28과 〈멍멍이가 가꾼 백일홍〉(듣기, 우화, 144쪽)	

1학년에서는 전체 1개의 텍스트 중 1개의 일상적 텍스트인 동시에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가, 2학년 1학기에서는 전체 8개 텍스트 중 2개의 일상적 텍스트가, 그 중 1개의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가, 2학년 2학기에서는 전체 6개 텍스트 중 2개의 일상적 텍스트가, 그 중 1개의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가, 3학년 1학기에서는 전체 8개 텍스트 중 2개의 일상적 텍스트가, 그 중 1개의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가, 3학년 2학기에서는 전체 8개 텍스트 중 3개의 일상적 텍스트가, 그 중 1개의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가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31개의 텍스트 중 일상적인 텍스트는 10개, 그 중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는 5개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 5개 중 김정호 이야기인 ‘3-1 제12과 〈10살 난 소년의 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솝 우화라는 지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교수 설계 차원

그렇다면 교수 설계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

‘국어교수설계’중 ‘제1장 소학교 국어 교재 분석’의 ‘제2절 국어 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교과서는 다른 과목의 교과서와 달리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 반제계급교양, 우리 조국의 위대성과 아름다움, 민족의 우수성, 도덕교양 등을 주제로 하는 『국어』 교과서는 말과 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국어 지식과 국어기능의 기초를 형성시키는 것과 함께 착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고운 것과 미운 것 등의 혁명적정서를 키워주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줌으로써 초급하중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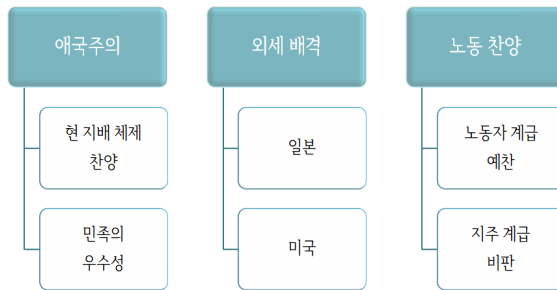
...(중략)...

『국어』 교과서는 제1학년에서부터 웅근글 교재 제 19과 <욕심많은 개>처럼 주제사상이 뚜렷한 웅근글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다른 과목에 비해 학생교양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학년에 반영된 교재들의 주제사상을 요약해 보면 위대성주제, 충실성주제, 레의도덕주제, 애국주의주제, 로동을 사랑하도록 하는 주제 등 다양하다.(18-19쪽)

위 인용을 통해 우리는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의 주제 사상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우리 당의 혁명 전통교양, 반제계급교양, 우리 조국의 위대성과 아름다움, 민족의 우수성, 도

덕교양’, ‘위대성주제, 충실성주제, 레의도덕주제, 애국주의주제, 로동을 사랑하도록 하는 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 설계 차원에서 나타난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주된 주제 의식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림 2>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주된 주제 의식

즉, ‘애국주의’ 주제 의식은 ‘현 지배 체제에 대한 찬양과 민족의 우수성’으로, ‘외세 배경’ 주제 의식은 ‘일본,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노동 찬양’ 주제 의식은 ‘노동자 계급 예찬, 지주 계급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통일시대를 꿈꾸며

이 연구는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할 때, “통

일시대”에 이남과 이북 출신의 어린이들은 문화 문식성 차원에서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지니며, 이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학교 내 문식성, 학교 밖 문식성, 학업 문식성, 학업 성취도, 직업 문식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의식으로 확장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의식 중 ‘학교 내 텍스트’에 한정해 ‘소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차원, 교과서 차원, 교수 설계 차원’의 접근 가능한 확정적인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의 문제를 ‘학교 내 문식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3장에서는 ‘이북의 초등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 설계 차원에서 나타난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의 주된 주제 의식은 ‘애국주의, 외세 배격, 노동 찬양’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애국주의’ 주제 의식은 ‘현 지배 체제에 대한 찬양과 민족의 우수성’으로, ‘외세 배격’ 주제 의식은 ‘일본,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노동 찬양’ 주제 의식은 ‘노동자 계급 예찬, 지주 계급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남에서 접근가능한 이북의 소학교 국어 1학년부터 3학년에서 제시된 전체 31개의 텍스트 중 일상적인 텍스트는 10개, 그 중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는 5개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남과 이북의 초등학교 혹은 소학교급에서 동질적인 텍스트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하는 텍스트가 이리 확연히 다르다고 할 때, 이남과 이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적 문식성은 무엇인가? 이를 논하기에 앞서 서로의 문화적 문식성의 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 개별자로 존재하는 이남과

이북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이기에 겪어야 하는 사회문화적 차별과 고통이 통일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초등국어교육 텍스트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현실 태로서의 이남과 이북의 문화적 문식성의 차이, 그 간극이 통일시대의 잠재적 부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의 과정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북 소학교에서의 실제적인 국어 교수 학습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후속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 국내 입국 탈북민 3만 명, 중국 체류 탈북민 10-20만 명인 이 시대에 우리는 탈북민의 북한 출생 자녀, 중국 출생 자녀, 국내 출생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가까이 있는 국내 입국 탈북민은 정작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통일시대를 꿈꾸면서 ‘이남 출생, 국어(교육) 연구자인 동시에 여성이자 엄마’인 ‘나’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 본 논문은 2021.2.3. 투고되었으며, 2021.2.18. 심사가 시작되어 2021.3.16.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순희(2008),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26, 89-121.
- 권순희·김호정·이수미(2008), 「다문화 문식성 제고를 위한 읽기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3, 177-204.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미혜(2010), 「다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 선정 원리 탐색」, 『한국언어문화학』 7(2), 23-46.
- 김미혜(2014), 「자이니치(在日) 문학에 대한 다문화 교육적 고찰」, 『비평문학』 54, 31-64.
- 김성진(2015),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35-58.
- 김양희(2016), 「2012년 학제개편 이후 북한 국어교육의 방향성」, 『국어교육연구』 62, 89-130.
- 김중신(2014), 「통일 시대 어문 교육의 방향」, 『국어국문학』 168, 93-121.
- 김현호(2016), 『국어교수설계 교원대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김혜영(2012),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분류 - 소설과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0, 261-284.
- 김혜정(2013),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 - 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 『한말연구』 33, 137-163.
- 리수향·성순옥·김화옥·하정순·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2013), 『국어 소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염정실·송일녀·김성옥·하정순·성순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3-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리수향·염정실·송일녀·김성옥·하정순·성순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3-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23-54.
- 박인기(2016), 「미래 사회 국어능력과 국어교육의 혁신」, 『새국어교육』 109, 191-217.
- 신은영·오현아(2020),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과 언어적응에 대한 질적 탐색: Berry의 문화 적응 모델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131-163.
- 안젤라 리·스미스·김미정(2020), 「전래동화를 통한 다중문식성 기반의 문화간 의사소통하 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7, 175-217.
- 엄인영(2020), 「북한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 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5(1), 107-154.
- 오현아(2021), 「이북 창작 동화에 나타난 언어문화 양상 읽어내기 - 『도끼장군』과 『금강선녀』

- 를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449-465.
- 오현아·김지혜(2019 ㄱ), 「탈북 대학생의 언어문식성 양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새국어교육』 120, 61-96.
- 오현아·김지혜(2019 ㄴ), 「탈북 대학생의 언어문식성 양상에 대한 질적 탐색: 학습생애사적 접근의 내러티브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71, 165-202.
- 윤여탁(2016), 「문학 문식성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 문화, 창의성, 정의(情意)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1, 155-176.
- 이삼형(2015), 「광복 70년 국어교육의 응전과 통일 시대의 과제」, 『국어국문학』 173, 49-75.
- 이인정(2021), 「통일시대에 대한 전망과 초등 국어교육의 과제(2)」, 『통일국어교육연구회 제5회 학술대회자료집』, 32-46.
- 이주량·양수경(2019), 「탈북민 화법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사회언어학』 27(4), 197-221.
-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181-212.
- 장지혜(2016), 「타자성과 정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일 시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55, 107-130.
- 진선희(2019), 「통일국가시대 초등 국어과 제재로서일제강점기 전래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5, 407-455.
- 진선희(2020),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1), 237-264.
- 한명숙(2016), 「다문화시대의 한국어 통일과 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어사회’와 ‘한국어 공동체’의 개념 수립을 기반으로」, 『청람어문교육』 60, 215-237.
- 한명숙(2020), 「통일시대의 한반도 지역어와 한국어 다양체의 교육적 시사점」, 『한국어문교육』 30, 155-182.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

— 이북 소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을 중심으로

오현아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 텍스트’에 한정해 ‘소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차원, 교과서 차원, 교수 설계 차원’의 접근 가능한 확정적인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북의 어린이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접하는가’의 문제를 ‘학교 내 문식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 설계 차원에서 나타난 이북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주된 주제 의식은 ‘애국주의, 외세 배격, 노동 찬양’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남에서 접근 가능한 이북의 소학교 국어 1학년부터 3학년에 서 제시된 전체 31개의 텍스트 중 일상적인 텍스트는 10개, 남북 공통으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는 5개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하는 텍스트가 이리 확연히 다르다고 할 때, 이남과 이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적 문식성의 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초등국어교육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현실태로서의 이남과 이북의 문화적 문식성의 차이, 그 간극이 통일시대의 잠재적 부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의 과정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 상호 문화 문식성, 이북 국어 교과서, 텍스트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Unified Era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Culture and Literacy

— Focusing on the Text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at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s

Oh Hyeonah

This study examined elementary school-level “text in school” accessible definitive materials such as those at the to ascertain the types of texts children in North Korea encounter. from the perspective of “text in school.” These materials include those at the curriculum-, textbook-, and teaching-design-levels.

The thematic analysis of terms in the North’s elementary school textbook, which appeared in curriculum, textbook, and teaching design, resulted in “patriotism, exclusion of foreign powers, and praise of labor.”

In addition, of the total 31 texts presented from grades 1 to 3 of the North’s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hat are accessible in the South, there were 10 casual texts and 5 widely known texts appearing in material from both countries, indicating that the proportion was not high.

When the text that is encountered through basic school education is so distinctly different, efforts need to be made to clearly identify and understand the other’s cultural literacy in order to live toge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preliminary step for an in-depth exploration of programs to ensure differences in cultural literacy between the two Koreas does not act as a potential burden in the unified era.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unification era, elementary language education, mutual cultural literacy,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 text